

국제사료원료시세와 단백질원료 동향

“양축가들이 왜 국제사료곡물 동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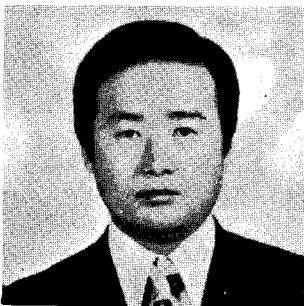
사료용 곡물 (옥수수 중심으로)

세계의 사료곡물수입국들은 '87~87'상반기까지 미국의 재고누중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달러화 하락과 함께 상당한 혜택을 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농민들의 손해가 얼마나 컸을 것이냐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과잉생산 및 풍작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 이하의 헐값으로 시장에 판매될 때 우리 소비자들 중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식부면적의 축소와 흉년으로 가격이 폭

등할 때 우리의 경우는 얼마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사재기(?), 정책빈곤에 대한 질타, 수입검토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농민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의 미온적 조치에 대하여 항의할 것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 또는 8년 주기설로 미국의 사료곡물시세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풍작속에 미국농민이 계속적으로 생산비 이하의 값을 받게될 때 미국농민은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농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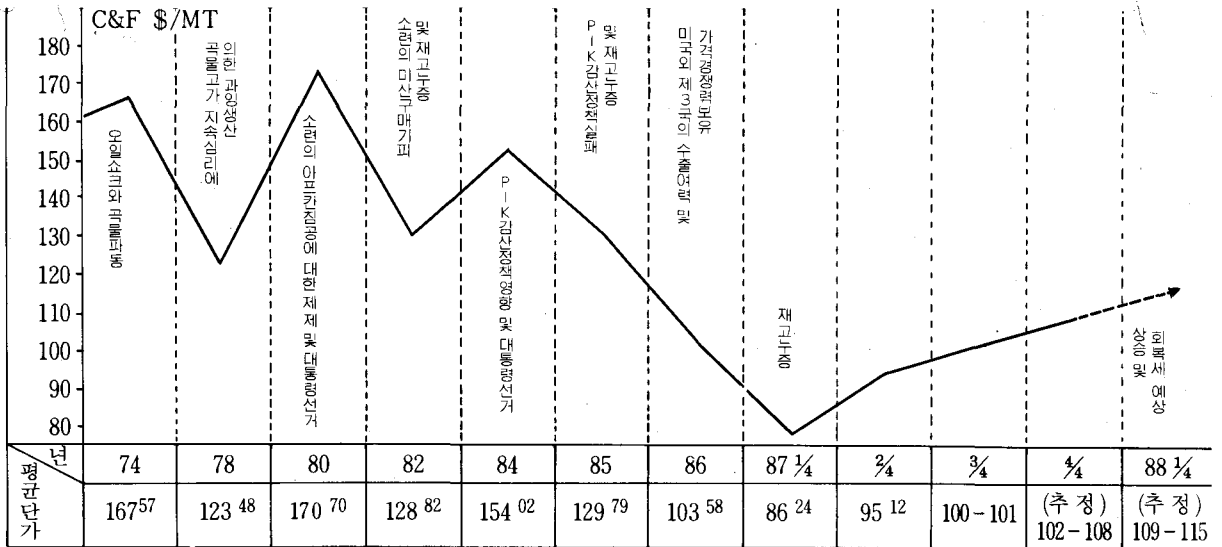
미국은 1988년 하반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8년도 상반기부터 선거무드가 조성될 것이다. 이때 대통령후보들은 미 농민들에 대하여 계속 참으라



김 동수

• 玉城씨비스상사 대표

(표 1) 미산 옥수수시세 변동상황의 주요작용요인



* 1. 미산 시세이므로 실도입단가와 상이할 수 있음
 2. 월/일 별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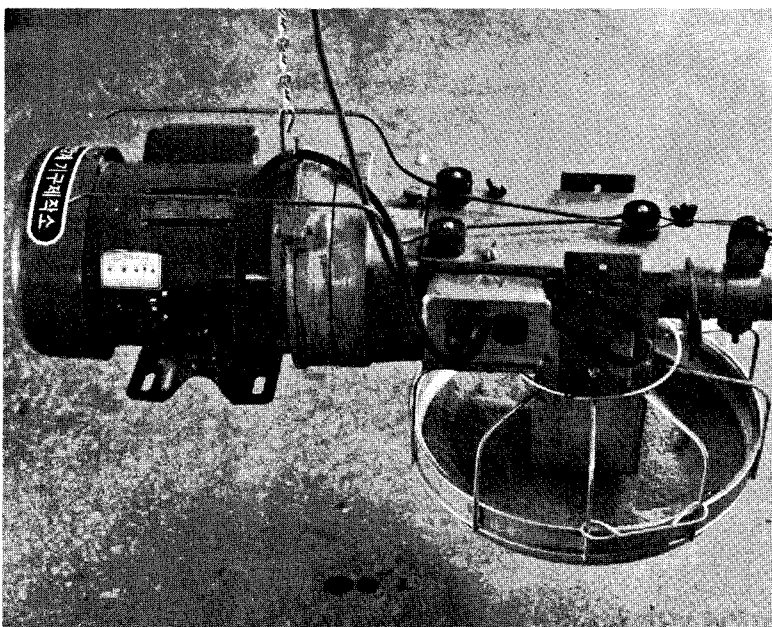
고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 가격수준을 제시할 것인가? 또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방치할 것인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한국 부두도착

기준으로 할 때 톤당 100\$선이다. 선임 평균 약 15\$을 제하면 미국 부두선적기준(FOB) 톤당 85\$선이다. 농민의 농장 생산원가가 톤당 100\$선이라고 한다. 농장에서 수출항까지 트럭, 기차 또는 바지선에 의한

수송비를 감안할 경우 톤당 15~20\$ 정도를 미농민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농민들의 손해를 동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계속되는 미 농민들의 적자이든, 미국정부의 적자이든 각각의 적자가 누증될 때 우리와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올 국제곡물의 양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수급상의 요인을 좀더 깊이있게 살펴보면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소련이 미국과의 냉전관계에서 화해무드로 변경되면 소련의 구매량 증가도 사료곡물시세를 자극할 것이며, 북부지역에서는 사료용 곡물을 수출하고 남부지역에서는 곡물을 수입하는 중공은 '87상반기 중 사료용 곡물을 한국시장에 극히 소량만



수출하였고, 하반기에 미산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없어 수입할 수 없는 현상은 이제 중공도 일부 수출, 일부 수입국에서 완전 수입국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공의 사료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될 때 상당량을 미국에서 수입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충분하다고 하는 재고물량이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남아공, 아르헨티나, 태국 등의 경우 예년과 같이 풍작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되어 수출여력이 축소되는 추세로 인하여 미농산물 가격을 견제할 만한 국가가 중·단기적으로 볼때 없다는 사실이 앞으로 가격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미국 Corn belt 지역에 충분한 강우량으로 인하여 옥수수가격이 100\$선에서 92~93\$선의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겠으나 국내 배합사료공장은 대부분 100\$선의 옥수수를 연말까지 확보하고 있어 최근 인하된 시세의 옥수수는 87

년말경 도입되어 88년초에 사용하게 될 것이나, 앞으로 더욱 인하될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의 전쟁위기는 원유가 회복 또는 폭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선임을 자극시켜 신곡출하시점에는 100\$선 이상으로 상승할 조짐도 보인다.

문제는 국제곡물가격양등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배합사료공장의 관계자, 양축농가의 이해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86년도 중반기에 사료용 소맥이 옥수수보다 톤당 10\$정도 저렴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료용 소맥은 옥수수 대비 에너지가(價)가 낮고, 점성이 있어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용비용을 높이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망설인 회사의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옥수수 대비 저렴한 소맥의 사용수준이 현재는 상당히 높아졌을뿐 아니라 축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곡류 총사용량 중 옥수수 대비 소맥의 사용비율에 있어 소맥의

사용비율이 옥수수 사용비율보다 높은 회사가 상당히 있으나 동 회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예가 없다. 이렇게 저가(低價)양질의 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새로운 원료의 도입 사용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저가, 양질의 원료도입에 있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능동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사료원료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면 옥수수가격이 100\$선 이상을 유지한 다하여도 배합사료 가격인상요인을 상당히 상쇄시킬 것이며 이는 양축 농가의 절대적인 이해만 있다면 양축농가 스스로 사료값 인상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계에 대하여 더욱 세차게 수입자유화 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예상할 때 배합사료공장과 양축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동반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받아야 되고 타사료공장보다 고가이거나 결제기간 때문에 거래처를 바꾸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료값이 고가일 경우 고가인만큼 효율이 좋은지를 양축농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파는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인만큼 효율에 대하여 자신있게 설명하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고객인 양축가의 이익이 발생되어야만 사료공장도

“축산업계에 외부로부터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배합사료공장과 양축가의 관계를 물건을 사고 파는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둘 중에 하나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현재의 입장에서 국내 축산물 가격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더욱 크다고 볼때 사료공장은 양축가에게 아프터 서비스, 양질, 염가, 결제기일해택 등의 서비스외에 양축농가에 대한 최종 서비스인 축산물의 수요창출과 판로개척 및 적정 가격 판매알선 등의 서비스를 깊이 검토하여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료용 단백질원료 동향

〈식물성 단백질원료〉

—식물성 단백질원료의 주종은 대두박과 기타 박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대두박은 국내 대두3사의 도입 대두에서 식용유 제조용 부산물인 국내 가공대두박과 도입대두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입대두박의 주종은 미국, 중공, 브라질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입대두박은 정부의 사료수급계획에 의한 연간 키퍼량으로 제한을

받으며 87년도도의 경우 도입키퍼량을 전량 소진함에 따라 '87하반기부터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한 대두박의 국제시세의 등락에 불구하고 도입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나 참고로 최근 대두박의 국제시세와 국내 가공대두박의 시세를 보면 (표2)와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인 곡물가격 회복세에 따라 국내 대두3사 역시 '87하반기부터 상반기 대비 톤당 약 17\$정도 고가인 대두를 사용하게됨에 따라 대두유 쪽으로 가격을 반영시킬지 대두박쪽으로 인상된 가격을 반영시킬지 또는 자체 원가절감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기업내부에서 흡수시킬지는 의문시되나 대두박 인상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국제 대두박시세의 앙등에 따라 국내 가공대두박도 인상시킬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3/4분기에는 어렵다 생각되나 4/4분기중에는 인상요인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박류는 캐나다산인 캐놀라와 중공산 채종박으로 대

〈표2〉 미산대두와 대두박 가격동향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86년	대 두	233 ¹³	229 ⁶⁹	226 ⁴⁷	222 ⁶⁰	223 ⁷⁶	220 ⁹⁸	215 ⁹⁵	215 ⁸⁷	202 ⁷⁷	204 ²³	210 ³⁰	206 ⁴⁹
	대두박	216 ¹⁹	214 ⁴¹	219 ⁴⁰	211 ¹⁴	208 ⁹⁰	207 ⁰⁴	207 ⁰⁹	211 ¹⁰	212 ³⁷	204 ⁶⁴	204 ¹⁶	195 ⁹⁰
87년	대 두	207 ⁶⁷	204 ⁸⁹	206 ³¹	214 ⁴⁶	229 ²⁵	231 ⁷⁸	* 국내대두박가격 (산물 ₩/kg 부가세별도)					
	대두박	200 ⁵⁰	201 ⁴⁸	196 ⁹⁸	206 ⁶⁷	223 ⁵⁰	237 ³⁸	84년 12월		85년 12월		86년9월~현재	
전년 대비 %	대 두	89 ⁰⁸	89 ²⁰	91 ¹⁰	96 ³⁴	102 ⁴⁵	104 ⁸⁹	215		220		215	
	대두박	92 ⁷⁴	93 ⁹⁷	89 ⁷⁸	97 ⁸⁸	106 ⁹⁹	114 ⁶⁵	* 큰 변동없었음					

* 1. 단위 : C&F \$ / MT

2. 각월 미산 평균가격임 (한사협차료)

별할 수 있겠으나 캐나다산은 가격이 현재 130\$선에서 160\$선으로 강세이나 87년도 4분기 신곡출하시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130\$선을 기초하기는 희박하며 중공산 채종박의 경우 캐나다 캐놀라보다는 품질면에서는 불리하다하여도 가격경쟁력면에서 경제성이 있어,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었으나 중공의 정책에 따라 최근 중공산 채종박, 면실박 등 식물성 단백질원료에 대하여 시장의 판도가 사는 사람쪽에서 파는 사람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 가격은 계속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동물성 단백질의 주종인 어분은 상당히 고가 원료로서 시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료 중의 하나이다. 그간 중공산 식물성 단백질원료인 채종박 등

박류의 염가구로 식물성 단백질원료의 결점인 아미노산 부족현상에 대하여 유럽 및 일부 지역에서 아미노산이 풍부한 메치오닐을 수입하여 배합 사료공장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년간 어분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어분용 고급어종의 어획량이 경제성 문제로 기피됨으로써 상품 어분원료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십여년에 한번씩 오는 기상 이변인 엘니뇨현상(태평양 바다물의 온도가 약 2℃정도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인 어분생산국인 페루, 칠레의 경우 홍어 등의 요인으

로 어분 국제시세가 양등하는 등 동물성 단백질원료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에 있어 양계용 배합사료에 필수적인 어분은 동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크게 등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동물성 단백질원료의 부족 또는 가격양등은 식물성 단백질원료의 주종인 대두박을 자극할 것이며, 이는 식물성 모든 원료가격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자극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87년도 동물성 단백질원료 쿼터량을 전량 사용치 못한 현시점에서 어민을 보호하는 입장의 한국단미사료협회와 사료공장 및 양축농가를 보호 대변하는 한국사료협회가 동물성 단백질원료의 수입추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표3〉 국산 어분 가격 동향

구분 \ 월	'87 1	2	3	4	5	6	7	8월이후추정가격
가격 (₩ / kg)	403	404	385	383	383	383	390	400이상 예상됨
지 수	100	100 ²⁵	95 ⁵³	95 ⁰⁴	95 ⁰⁴	95 ⁰⁴	96 ⁷⁷	

* 1. 각월별가격 부가세 별도가격임.

주원료(곡류) 도입원료 구매현황

구매일자	품 명	구매기간	원 산 지	(M/T) 수 량	(C&F \$) 단 가	도착예정일	공 급 상 사	비 고
6 / 26	옥수수	축 협	미 국	50,000	95 ⁵⁵	9 / 15	선 경	
"	"	"	"	"	96 ⁴⁴	9 / 30	력 키	
7 / 10	"	"	"	"	94 ²⁷	10 / 18	카 길	
7 / 15	"	사 협	"	"	91 ⁹²	10 / 15	삼 가	
"	"	"	"	"	90 ⁸²	"	삼 미	
6 / 30	소 맥	축 협	캐나다	50,000	85 ⁴³	10 / 26	현 대	
"	"	"	"	"	85 ⁶⁴	12 / 12	"	
7 / 15	"	사 협	"	"	84 ⁵⁵	10 / 20	"	

* 1. 상기 단가 SILO CHARGE, 2PORT CHARGE 포함가격임.

'87상반기 중 기히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 원료의 수입추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어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분론에 따라 결론적으로 시기를 일실한 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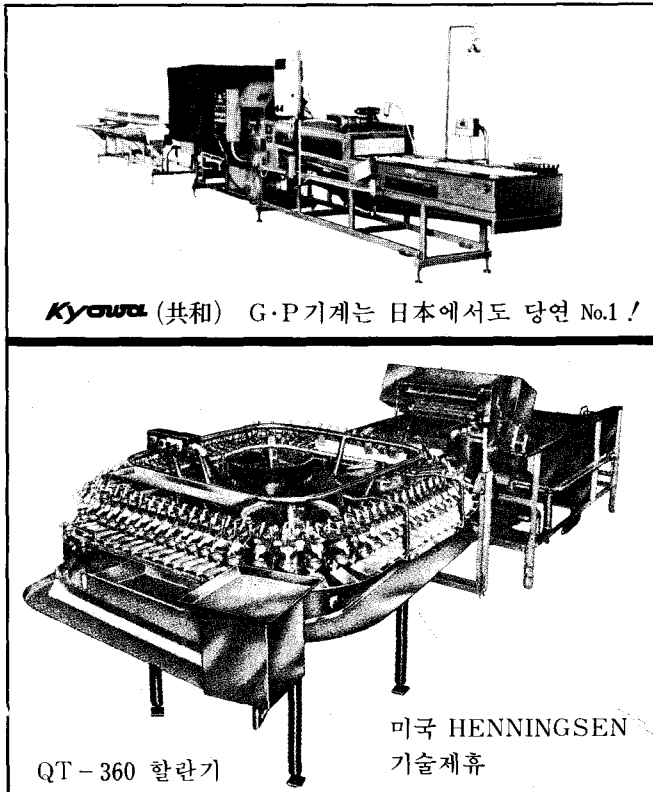
그러나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이한 사료업체는 곧 시행될지 모르는 정부의 정책적결심 여하에 따라 쿼터부족문제, 기타 곡류문제, 식물성 단백질원료의 추가 해제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87년도 4분기중 소폭적인 배합사료 가격인상은 예상할 수 있으나 급격한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개방화시대에 따라 이제부터 배합사료업체는 질과 양의 서비스면에서 불꽃튀는 국내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든 일이 잘안되면 조상의 탓으로 돌린다. 축산물 수입개방이 예고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럴때마다 양축농가들의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은 업권과 생계보호수단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료공장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가

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책이 항상 늦게 나왔다. 자본의 축적, 인재의 양성, 기술축적 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아직도 늦지는 않다. 자기능력에 맞는 쉬운 일부터 서로 협심하면서 해결한다면 즉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의 생업과 업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의미에서 서로 협심한다면 국제경쟁화시대를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



Kyowa (共和) G·P 기계는 日本에서도 당연 No.1!

미국 HENNINGSEN 기술제휴

QT-360 할란기

Kyowa G·P기계는 세계 어느 MAKER보다도 구조 및 운전이 간편합니다.

- 대형 : 15,000~40,000개/시간
- 소형 : 3,600~10,000개/시간

1. G·P기계류 (위생란류)
2. 계란가공기계류 (액란, powder)
3. 난좌 세척기류

※ 폐사는 G·P 및 계란가공시설 전문업체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3-1
(성원B/D 1302-1)
송원실업(주) 776-1827,
FAX 757-3707

日本:共和機械(株)

TEL: (0868) 26-6600,